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12강 : 복음의 마지막 권면 - 빌립보서 4:1-9,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의 일환으로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빌립보서 4장 1-9절, 복음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주제로

12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섹션은 "복음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섹션에서 어디까지 살펴보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4장 3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단순히 본받으라는 권면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음을 신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러한 진리를 적용하여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이 화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편지 결론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편지 본문은 끝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이 결론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의 성장과 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구절은 복음서의 마지막 권면이며, 그 다음으로는 복음 사역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권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존귀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무엇이든지 덕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또 한 번 기뻐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 그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는 아직 두 장을 더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도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 말미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든, 물론 바울의 상황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며 복음 전파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지 사형에 처해질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닻과 같아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쁨의 시기는 “기쁨을 느끼고 싶을 때”라고 말합니다. 잠깐, 제가 구절을 잘못 읽었나 봅니다. 항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슬픔, 고통, 또는 다른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합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 또는 기쁨과 슬픔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도 기쁨이 얼마나 깊은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기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나 우리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로 인해 슬픔과 고통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볍게 내놓은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다음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전체는 마치 속사포처럼 빠르게 이어지는 계명들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썼습니다. 적어도 영어 표준역(ESV)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이를 "온유함"과 같은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는 법이나 관습의 모든 권리를 문자 그대로 고집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BDAG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SV와 같은 일부 번역본에서는 '합리성'으로 번역했는데, 이 경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NIV나 신미국표준역(NAS) 같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온유함 또는 온유한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너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가져오려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회중의 두 여인, 에우오디아와 신티케에게 주님 안에서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화해하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맥락에서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장로의 자격 요건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친절하게 대하기 쉬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편지 초반에 바울이 '모든', '각각', '항상'과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는 이 명령들을 포괄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5절 마지막 부분에 근거하는데, 이 부분에도 해석상의 의문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일까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일까요?

그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표징되어야 합니다. 또는 같은 표현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온유하거나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마도 영어 성경 번역처럼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 의미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인 모호함의 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때때로 '이것은 이런 의미이거나 저런 의미 여야 한다'라고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여 주어진 순간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요컨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의 가까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임재, 또는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함으로 특징지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성품의 필수 요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신념과 담대함을 갖추되, 그 담대함과 확고한 신념을 보완하는 온유함도 지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일 텐데,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아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심에 대한 치료법, 즉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 특정한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 은 실제로 지키기 가장 어려운 계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불안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 아뢰기에 너무 작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 이야. 하나님께서는 갈등이나 전쟁, 강대국 문제 같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걱정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연결 고리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바울이 왜 이 두 용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용어인 기도는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간구는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더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안한 마음과 싸우는 방법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관점을 알려줍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한 생각이나 스트레스, 걱정거리로 직면했을 때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단순히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를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결국 "아,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기도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기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불안한 생각,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린 불안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불안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하세요? 조금만 기도하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생각과 감정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거듭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 대부분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야기하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핵심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점점 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장에서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인사말로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결과적인 상태를 한 단어로 줄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깐만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실현될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면서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불안이나 불확실성, 불편함이 없는 주관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 나는 이런 고요함을 느껴요"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려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화해의 사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감정적인 불확실성이나 혼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하는데,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性)을 나타내는 구조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화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평화가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 또한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자 영역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구절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기도하며 고민할 때, 혹은 어떤 문제로 씨름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 평안을 기다리라고 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고요하고 편안한 확신이 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안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뒤척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사용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 주관적인 평안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정을 놓고 고심하다가 '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은 이것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분명 평온함과 확신, 그리고 편안함을 가져다주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바를 알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갈등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 하나님의 평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마지막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바울이 정말로 편지를 여기서 끝맺는 건가 싶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존귀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무엇이든지 덕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되고, 존귀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탁월하고, 찬사를 받을 만한 것들을 빠르게 나열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생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우리가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절 끝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목록이, 이 목록은 모든 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거나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바울은 여기서 넓은 의미로, 자연 속의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처럼 사랑스러운 것들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좋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훌륭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그것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영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주목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마음을 쏟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에 뿌리내리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주로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들이 떠오를 때,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그 생각들을 사로잡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에 죄와 재앙이라는 독이 든 열매를 맺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비록 그가 빌립보서 전체에서 보아온 '마음가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도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적용에 대한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서 '배웠다'와 '받았다'라는 표현은 정식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며, '받았다'라는 표현은 전통을 전승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형식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듣고 본 것을 덧붙이는 거죠. 이제 그는 "여러분은 제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실마리들을 하나로 엮어 "자, 내 삶에서 관찰한 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들을 연습하세요.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실천에 옮기세요. 연습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실천에 옮기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약속이 있을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바꾸셨는지 주목해 보세요. 앞서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평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일련의 명령과 최종 권면을 빠르게 쏟아냅니다. 이러한 빠른 전개에서 잠시 벗어나 이 구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요약하자면, 어떻게 복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식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지속적인 대화, 끊임없는 소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며, 올바른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을 통해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들이 그냥 떠오르기만을 내버려두고,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을 특정 대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셋째, 갈망하거나 느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에서 오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갈망하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는 불안감이 많은 경향이 있고, 끊임없이 최신 위기나 걱정거리에 대한 메시지에 시달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돋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반응하거나 "세상이 무너질 거야, 모든 게 끝장이야"라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평화가 주는 안정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주는 안정과 안전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해 보세요. 제가 직접 해 본 연습인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각 자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 한 가지씩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참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존경할 만한'은요? '사랑스러운'은요? 아니면 훌륭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은요? 적어도 한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도적인 방법을 말입니다. 이것으로 복음서의 마지막 권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시간인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에 감사를 표하고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의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번 강해는 열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마지막 권면 -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